

분류	70인
제목	교회 소통
성경	
일시	2012년 1월 31일
장소	렘넌트 신학교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 요약 자료 ♣

♣ 서론

- ▶ 중직자로서 꼭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 (1) 사람 소리- 교회에 오면 생각보다 사람소리를 많이 듣는다.
- (2) 환경- 분위기라든지 환경을 접하게 된다.
- (3) 세상, 연약- 그런 속에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해져 있다. 일반 신자들이 대부분 이렇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 ▶ 그러면 오늘부터 중직자 여러분이 시작해야 할 게 하나 있다. **제가 전도하는 방법은 제일 키는 현장이 아니다- 새가족(분야→확립→교회화)**. 새가족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나하고 분야가 같은 새가족이다. 새가족을 접촉해라. 새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사람에게 많은 문이 있다. 한 번 정도만 중직자들이 집에 초청해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확립을 시켜주는 것이다. 이것을 조금만 도와주면 분명히 뭔가 나온다. 그때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라. 확립이 되면 교회화를 시켜주면 된다. 이런 사람을 연결시켜 준다. 이런 사역들을 여러분이 해보면 굉장히 많은 열매가 일어난다.
- ▶ 그러면 새가족에게나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1. 비밀

- ▶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어야 한다.
- (1) 영적 상태(행1:1-14)
 - ▶ 앞으로 너가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가져야 하는 영적 상태. 이것을 제대로 이야기해주면 그날로부터 역사가 제대로 시작된다.
- (2) 영적 성취(행2:1-13)
 - ▶ 이때부터 알려줘야 하는 건 너가 가지고 있는 상태대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성취된다. 이러면 완전히 신자가 되고 신자를 넘어서 제자가 된다. 이때부터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 전에는 연약했는데 이때부터는 환경보는 눈이 달라진다.
- (3) 영적 소통(행2:14-47, 행3:1-9)
 - ▶ 이것을 보고 영적 소통이라고 한다.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 ▶ 정시기도하라는 말을 한 마디로 바꾸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2. 교회 소통

- (1) 강단
 - ▶ 이때부터 강단이 살아나는데 강단이 나를 위해 있는 것 같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러다보면 예배 때 기대가 된다.
- (2) 성도의 귀중성
 - ▶ 이렇게 되어지면 목사와 성도의 귀중성을 보게 된다.
- (3) 구원의 일들
 - ▶ 이때부터 구원이 중요하지만 구원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복음이 다다. 계속 온다. 이것을 보고 "떡을 때며..."
- (4) 오직 기도
 - ▶ 이런 배경을 아니까 오직 기도면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한다.

3. 교회의 기둥

- ▶ 이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교회의 기둥으로 바뀐다. 교회의 기둥으로 중직자가 역할을 감당한다.
- (1) 개인 기도의 성공
 - ▶ 어느 날, 이 사람은 개인기도의 성공을 이루게 된다.
- (2) 기도조
 - ▶ 이 사람이 기도조가 구성이 되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 (3) 24시 기도조
 - ▶ 아까 말했듯이 24시 기도조가 나온다.

♣ 결론

- ▶ 중요한 결론이 나온다.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
- 메시지 전달**- 여러분 사역 중에 제일 큰 사역. 결과적으로 하나

- 남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것이다.
- (1) 초대교회 사도
 - ▶ 초대교회 사도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 두기고
 - ▶ 사역을 도운 두기고 같은 사람이 이 부분을 도운 것이다.
- (3) 집
 - ▶ 초대교회 많은 집이 나오는데 집에서 메시지가 전달 되어졌다.
 - ▶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나머지 것은 사실상 기도할 필요도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The end)

♣ 녹취 자료 ♣

♣ 서론

- ▶ 70인은 주로 중직자다. 중직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고 물으면 할 게 많다. 주로 중직자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 이 부분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중직자가 되면 이것 저것을 맡기기도 한다. 그런데 그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심부름조차 못한다면 어렵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그냥 하면 된다. 단, 하되 우리가 중직자로서 꼭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 (1) 사람 소리
 - ▶ 교회에는 각종 사람들이 온다. 생각보다 사람소리를 많이 듣는다.
- (2) 환경
 - ▶ 분위기라든지 환경을 접하게 된다.
- (3) 세상, 연약
 - ▶ 그런 속에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해져 있다. 일반 신자들이 대부분 이렇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렇다고 할 때에 중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쩔 때는 성가대장도 하고, 제정부장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들 하게 된다. 조금 나아져서 다락방만 하는 일인데 지교회도 하고, 이젠 큰 일이 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아무 의미없이 맴돌게 된다.
 - ▶ 그러면 오늘부터 중직자 여러분이 시작해야 할 게 하나 있다. 제가 한 것을 이야기해보겠다. 중직자들은 그렇게 하면 누구나 잘 될 것이다. 제가 지금 전도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혹시 캠프나 노방전도를 해보셨을 것이다. 영접하고 주소 적고, 전화번호를 적는다. 전화를 해보면 거의 다 전화번호가 틀리거나 주소가 틀리다. 전화번호가 맞는 사람도 있다.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다. 모자란 사람들을 모아서 신앙 생활하는 게 교회다.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나간다. 그렇다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제가 전도하는 방법은 제일 키는 현장이 아니다- 새가족(분야)**. 새가족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나하고 분야가 같은 새가족이다. 아까 말한 전도현장에서 새가족이 교회에 왔다는 건 기적이다. 대부분 캠프 나가서 아는 사람 통해 만났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다. 여러분이 죽도록 캠프하는 캠프대 몇 년 지나보면 사람이 없다. 그것을 발견 못했는가? 전도를 진짜로 한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정말 내가 전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거의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가 낙심하고 그만두는 것이다. 방법을 알아도 그만 두는 것이다. 그렇다고 볼 때에 자기 발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새가족은 여러분이 깜짝 놀라야 할 기적이다. 정말 여러분, 전도현장 100군데만 가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보석으로 보인다. 전도현장에 안 가면 사람은 누가 왔는가 싶지만 가본 사람은 어떻게 왔을까 하고 놀라게 된다.
 - 새가족을 접촉해라. 접촉하는데 바로 하지 말고 조금 있다해라. 금방 접근하면 구역자와 담당구역자가 부러진 화살 쏘듯이 마구 쏜다. 시간이 좀 지나면 틀림없이 방치되어 있다. 며칠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가족의 가족인데 세상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사는 집이 팡주라는 것이다. 어느 교회에 소개하면 좋겠다고 하더라. 어느 교회에 하라고 얘기했다. 전에 한 번 소개했더니 관리를 안 했다고 하더라. 아마 바빠서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보통 새가족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저는 전도성공을 전부 여기에 시켰다. 틀림없다. 대부분 못하고, 안 한다. 해도 껌테기로 하다가 반드시 몇 달 안에는 방치된다. 그렇다고 볼 때에 어찌 해야 할지, 답이 쉽게 나온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 같으면 의사 새가족을 부르면 같은 직종이라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 자매가 눈물로 고백을 했다. 집이 시골인데 명절 때마다 가서 아버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다고 한다. 그런데 얘기를 들었더니 영접했다. 그래서 과일들 사들고 전도사님을 찾아갔다. 전도사님이 전혀 놀라지 않더라. 과일까지 주면서 아버지를 심방해서 꼭 교회에 다니게 해달라고 했다. 석 달이 지난 뒤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었다고

한다. 전도사님이 찾아왔었다고 물으니 안 왔다고 한다.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했더니 쑥스러워서 못하겠다고 하더라. 자기는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데 쑥스러워서 못 간단다. 전도사님께 또 전화를 했다고 한다. 정말 부탁하니 우리 집에 한 번만 가서 우리 아버지를 안내해달라고 했다. 알았다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몇 달 뒤 또 명절이 온 것이다. 그때까지도 전도사님이 안 온 것이다. 이번에는 사과를 두 상자를 가지고 갔단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한다. 그 전도사님의 특징은 주로 낚시를 좋아한다고 한다. 낚시를 좋아한다는 것과 낚시도 좋아한다는 건 다른 말이다. 실제 관심있는 것이다. 있어도 교역자들이 왔다가도 얼골 심방일 뿐이다.

▶새가족(확립, 교회화)→ 관심- 문- 초청
 새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사람에게 많은 문이 있다. 한 번 정도만 중직자들이 집에 초청해라. 이것만 갖고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애기도 해주고, 과일도 주고 하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확립-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확립을 시켜주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관심을 가지고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다. 이것을 조금만 도와주면 분명히 뭔가 나온다.

그때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라.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머리가 복잡하다. 목사님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긴장되어 있다. 일반 교회들 가보면 이 장로가 이 말하고, 저 장로가 저 말을 하니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몇 년 버티다 무너진다. 그럴 때에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은혜 받는다. 당장 설교에서 나온다. 그때에 가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자고 한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목사님이 바쁘게 관심이 없다가도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말한다. 목사님은 설교자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 굉장히 힘을 얻는다.

교회화- 확립이 되면 교회화를 시켜주면 된다. 이런 사람을 연결시켜 준다. 이런 사역들을 여러분이 해보면 굉장히 많은 열매가 일어난다.

▶저는 전도를 이렇게 했다. 시간이 없다. 현장에 간다, 말이 현장이지. 내가 부교역자를 본격적으로 할 때는 시간이 없더라. 얼마나 시간이 없었냐면 강도사고사 치를 때는 시간이 없더라. 그런데 전도문을 많이 열었다. 새가족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해줘야 하나?
 새가족에게나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1. 비밀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다. 확실한 설명을 해야 한다. 물론 기도는 이렇게 한다, 확실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전도는 이것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보통 그것을 설명한다. 그것을 설명해주면 그 사람은 확립되지 않는다.

(1)영적 상태(행1:1-14)
 ▶앞으로 너가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가져야 하는 영적 상태. 이것을 제대로 이야기해주면 그날로부터 역사가 제대로 시작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상태가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알아낸 것이다. 영적 상태를 지켜주면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2)영적 성취(행2:1-13)
 ▶이때부터 알려줘야 하는 건 너가 가지고 있는 상태대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성취된다. 이러면 완전히 신자가 되고 신자를 넘어서 제자가 된다. 이때부터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 전에 연약했는데 이때부터는 환경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때부터는 사람소리 듣는 귀가 달라진다. 여기에서 합숙가고 신학원 가면 완전 달라진다.

(3)영적 소통(행2:14-47, 행3:1-)
 ▶이것을 보고 영적 소통이라고 한다.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먹어도 영적 상태가 안 잡혀 있으면 들을 때뿐이다. 단번에 변하는 건 거짓말이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다. 미국을 살리려고 하면 미국의 모든 중직자, 목회자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행1:1-14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 행2:1-3 영적 상태. 행2:14-47까지 영적 소통이 일어나고 드디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집에 초청 안 해도 이 눈만 뜨면 식사를 같이 해도 된다. 모든 일을 다하면서 할 수 있다. 어차피 교회에 가는 것, 교회에서 만나도 된다. 이 사람을 우리 집으로 초청한다는 건 집 자랑하고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 키가 이거다. 여러분의 몸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건강회복을 못한다. 몸 상태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약을 먹어도 회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들어서 건강을 잃은 게 아니다. 건강을 잃어서 병이 든 것이다. 그래서 정시기도하라는 말을 한 마디로 바꾸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영적 상태를 말

하는 것이다. 영적 상태가 무너져 역지로 참고 있으면 어느 날, 무너지는데 막을 수 없다. 영적 상태에 힘이 있으면 그대로 성취되고 힘을 얻게 된다.

2.교회 소통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교회 소통이다.

(1)강단
 ▶이때부터 강단이 살아나는데 강단이 나를 위해 있는 것 같다. 매주일 어찌면 내게 말씀을 주시는지. 정상적인 신자다. 그런데 어찌서 내 말만 하냐고 하고 빠져서 나가는 사람은 비정상 교인이다. 답이 나온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러다보면 예배 때 기대가 된다. 오늘은 무슨 말씀이 나올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예배당에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단에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했더니 교인이 살아났다는 말은 맞지만 틀린 말이다. 메시지를 들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신다.

(2)성도의 귀중성
 ▶이렇게 되어지면 목사와 성도의 귀중성을 보게 된다. 목사의 수준이 낮다고 하는 사람은 응답 받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고 하면 절대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고 내가 도와줘야 할 일로 보인다. 심지어 목사님이 이상해 이상하게 안 보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저것을 못했다고 보여진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자기가 회개를 한다. 이렇게 되어진다. 그것을 보고 교제하며,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또 폼잡는 것도 맞지만 다르다.

(3)구원의 일들
 ▶이때부터 구원이 중요하지만 구원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복음이 다다. 계속 온다. 이것을 보고 "떡을 떼며..." 아무 두려울 게 없다.

(4)오직 기도
 ▶오직 기도에 힘 쓰니라.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배경을 아니까 오직 기도면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

▶교회에 가짜들이 꼭 있다. 전부 자기가 잘 났다고 한다. 가짜다. 오직 예수!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다.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해봐라. 이런(사람 소리, 환경, 세상 가운데 연약)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받겠는가? 이런 상태에서 연약하는데 어떻게 응답 받겠는가. 그래서 램프들을 보면 게임에 빠진 친구들이 많은데 영적 상태를 알고 조금만 조심하면 달라진다.

3.교회의 기둥

▶이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교회의 기둥으로 바뀐다. 교회의 기둥으로 중직자가 역할을 감당한다. 이 작은 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눈을 중직자들이 빨리 떠야 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들을까 싶어서 쉬워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떠들고 다닌다. 그것도 못 참아서 집에 가서 이야기한다. 자식까지 죽여 놓고 온다. 그것도 못 참아서 직장 가서 이야기한다. 회사의 불신자까지 죽인다. 이런 중직자가 꼭 있다. 어떤 사람은 택시 안에서도 이야기한다. 운전수까지 힘을 뺏다. 운전수가 욕한다. 한 번은 택시 타고 메시지를 주니까 전혀 반갑다고 하지 않고 이상한 날이라고 하더라. 이유를 물으니까 이상하게 교인들만 탄다고 하더라. 짐사가 뒤에 앉아서 교회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머리가 아팠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료를 줬다. 예수님은 맨날 짐사가에 못 박힌다. 신앙생활이 그리 어려운가? 정말 이상하다.

▶중직자들은 교회 가서 큰 사역 안 해도 된다. 교회에 있는 것, 여러분 파트 있으면 그거 하면서 이 눈을 떠라. 서울로 올라와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다르다. 어떤 분야를 맡으면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한다. 목사님들도 그렇다. 교회당회장이면 전 교회당을 섬기는 책임자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 너무 비상식이다. 중직자들은 이것만 해도 된다. 가만 놔둬도 교회의 기둥이 된다.

(1)개인 기도의 성공
 ▶어느 날, 이 사람은 개인기도의 성공을 이루게 된다.
 (2)기도조
 ▶이 사람이 기도조가 구성이 되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3)24시 기도조
 ▶아까 말했듯이 24시 기도조가 나온다.

▶결론

▶중요한 결론이 나온다. 메시지가 어려운 게 아니다. 놓치지 않으면 바로 응답 받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

메시지 전달- 여러분 사역 중에 제일 큰 사역.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것이다. 가장 큰 사역이다.

(1)초대교회사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두기고

▶사역을 도운 두기고 같은 사람이 이 부분을 도운 것이다.

(3)집

▶초대교회 많은 집이 나오는데 집에서 메시지가 전달 되어졌다.

▶요즘 스마트폰을 쓴다. 할배들은 못 쓰지만 다 쓸 수 있다. 카톡 보내면 한 번에 다 간다. 길게 쓰지 마라. 길게 쓰면 바쁜 사람일수록 못 본다. 한 두 마디를 썼는데 이게 뭐지, 답이 된다. 보고 기도하게 된다. 한 두 마디가 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 다른 중직자에게도 보내고, 새가족에게도 보내고. 이게 굉장한 역사다. 쓸데없는 걸 보내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줘라. 선생님에게 가서 긴 말을 하면 선생님 이 싫어한다. 회사에 가서윗사람에게 긴 말로 논문을 쓰면 싫어한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만 던지면 회장이 번쩍 하는 게 있다. 지금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것을 새가족, 중직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것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았다. 옛그제도 통화했지만 지금도 그 이야기를 했다. 내가 수 십 년 동안 부교역자를 했다. 그런데 전 교인은 싸움만 한다. 싸움 안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만 봤다. 그래서 당신을 잊을 수 없다. 저에게 전화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 지금까지 정말 전도하는 사람을 봤는데 정말 당신이야. 평신도로, 성공한 사람으로. 전화왔길래 그 이야기를 해줬다. 만나서 식사하자고 했다. 그 사람이 손세만 선교사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 우리는 중직자,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나머지 것은 사실상 기도할 필요도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 http://www.jcking.net ② http://www.rutc.com	
총 국 장: 김성호 목사(☎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010-5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	